

해외출장복명서

기 간: 2016. 11. 6 ~ 2016. 11. 12

출장지: 프랑스

출장자: 김동한

I. 출장개요

1. 출 장 지: 프랑스 파리
2. 출장기간: 2016. 11. 6 ~ 11. 12
3. 출 장 자

소속	직급	성명	비고
국토연구원	책임연구원	김동한	

4. 출장목적

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(RDPC) 회의참석 및 정부대표단 활동지원

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(RDPC)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토연구원의 위상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도모

II. 출장일정
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업무수행내용
11/6(일)	인천	파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발(14:20) 및 도착(18:45) ■ 회의 참석 준비
11/7(월)	파리 OECD 본부 회의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회의 참석 - 제31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(09:30-18:00)
11/8(화)	파리 OECD 본부 회의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회의 참석 - 제20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(09:30-18:00)
11/9(수)	파리 OECD 본부 회의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회의 참석 - 제36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(09:30-18:00)
11/10(목)	파리 OECD 본부 회의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회의 참석 - 제36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(09:30-18:00)
11/11(금)	파리	인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회의내용 정리 및 전문 작성 ■ 출발(19:00)
11/12(토)	인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착 (13:50)

제36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(RDPC) 및 산하작업반 회의 주요내용

I 제31차 지역지표작업반

1. 오프닝 세션

□ 환영사 및 의제 승인

- 환영사 (의장)
- 제30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결과 요약보고 및 제31차 주요안건에 대한 회원국의 승인

□ 2017년 의장단 승인

- 2017년 지역지표작업반 의장단(Bureau) 소개 및 회원국 승인
 - 의장 : Mr. Duarte Rodrigues (포르투갈)
 - 부의장: Mr. Alessandro Alasia (캐나다)
 - 부의장: Mr. Lewis Dijkstra (유럽연합)
 - 부의장: Ms. Sylvie Marchand (프랑스)
 - 부의장: Mr. Rupert Kawka (독일)
 - 부의장: Mr. Giovanni Barbieri (이탈리아)
 - 부의장: Mr. Francisco Vala (포르투갈)

□ 주요활동 보고

- 2015년-2016년 주요성과 소개
 - 2016년 지역보고서 (Regions at a glance 2016)
 - 모두를 위한 도시 만들기 (Making cities work for all)
 - 덴마크 도시의 웰빙 (Wellbeing in Danish cities)
 - 지역 웰빙 지표의 활용 가이드 (Guidance on use regional wellbeing indicators in regions and cities)
 - 기능적 도시지역 (Functional urban areas) 등에 대한 연구수행 및 보고서 발간

- 2016년-2017년 주요계획 소개
 - 기업 통계 (Business demography)
 - 지역 데이터베이스 갱신 (Update on regional database)
 - 메트로폴리탄 데이터베이스 갱신 (Update on metropolitan database)
 - 낙후지역과 생산성 (Lagging regions and productivity)
 - 이주 및 이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(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migration and immigration) 등에 대한 연구수행 예정

- 2017년-2018년 주요계획 소개
 - 도시간 격차에 관한 이해 (From divided to inclusive cities: understanding intra-city disparities)
 - 모로코 지역통계 (Territorial statistics for Morocco)
 - 기능적 도시지역 (Functional urban areas)
 - 튀니지의 지역지표 (Governance of territorial statistics in Tunisia) 등에 대한 연구수행 예정

2. 지역기업통계(Regional Business Demography)

□ 주요내용

- 이 세션에서는 지역기업통계(Regional Business Demography)를 생산 및 구축하기 위해 OECD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안(scoping paper)의 내용을 발표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였음
- 기업활동은 지역의 성장과 포용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지역수준에서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일관된 기업통계 자료는 아직 미흡함
-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, 맞춤형 지역개발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, OECD는 지역수준에서 국가간 기업활동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통계자료의 구축에 착수하였으며, OECD 사무국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
- TL2 및 TL3 지역별로 기업수, 기업의 생성 및 소멸률, 기업의 고용자수, 생성 및 소멸 기업의 고용자수 등의 정보를 구축하고,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유형별로 다시 세분화 하고자 함
- 그러나 기업통계자료의 공간적 구체성, 내용적 구체성 등에 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
- University of Jena의 Michael Fritsch 교수는 “New business formation, entrepreneurship, and regional development”라는 주제로 기업통계의 활용성과 주요 이슈를 소개함
- 기업의 생성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
- 기업통계자료는 기업의 유형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하며, 특히 1인 기업, 자영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하여야 함을 주장

3. 지역생산성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

□ 주요내용

- OECD의 2016년 지역전망 보고서(Regional Outlook 2016)에서는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 교역부문(tradable sector)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음
- 이 세션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생산성(productivity)과 교역(trade)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
- 먼저 지역 수준에서의 단위 노동비(regional unit labor cost)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역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소개
 - 단위 노동비는 단위 생산물당 평균 노동비를 의미하며, 비용-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됨
 -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별로 섹터별로 단위 노동비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
- 다음으로 교역부문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념적 정의를 위해 University of Groningen 대학의 Bart Los 교수 글로벌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s, GVCs)의 개념을 소개하고 최근에 개발된 지표에 대하여 소개
 - 기존의 글로벌가치사슬은 국가수준에서의 지표이며 공간적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함
 -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세계 투입-산출 (World Input-Output Tables)는 국가간 비교뿐만 아니라 국가내 지역간 비교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지역정책에 활용성이 높음을 주장

4. 원탁토론 : 지역과 도시의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웰빙지표의 활용

□ 주요내용

- OECD는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과 집행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의 웰빙 지표를 개발한 바 있으며, 각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
 - 소득, 고용, 주거, 보건, 교육, 안전 등 11개 부문 14개 지표로 구성
- 이 세션에서는 지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웰빙 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사례로 “덴마크 도시의 웰빙”의 내용을 소개함
 - 코펜하겐, 오텔세, 에스비에르, 오루후스, 올보르 등 덴마크의 5개의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웰빙지표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, 이는 OECD 지역웰빙 지표를 도시 차원에서 적용하고 결과를 도출한 최초의 사례 연구임
 - 분석을 통해 각 도시권역의 소득 수준, 고용 수준 등 지역의 웰빙 각 부분별로 상대적 우수성 정도를 비교하였으며,
 - 지역정책 수립시 웰빙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활용성 등을 논의하였음
 - 효율과 형평의 조화 추구, 다부문적(multi-sectoral) 접근, 거버넌스 증진 등에 활용

5. 이주민 통합을 위한 지역적 접근

□ 주요내용

- 수년전부터 급증한 난민문제로 인해 특히 유럽지역의 경우 지역정책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
- 특히 지방정부는 난민위기 관리,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 서비스 제공,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환경 마련, 노동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최일선에 있어, 각 지방정부의 난민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
- 이에 OECD는 유럽연합과 공조하여 “이주민 통합을 위한 지역적 접근”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화적으로 제시하고자 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소개함
 - TL2, TL3 지역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난민문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
 - TL2, TL3 지역별로 난민문제의 파악과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34개의 지표를 개발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음

1. 오프닝 세션

□ 환영사 및 의제 승인

- 환영사 (의장)
- 제19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결과 요약보고 및 제20차 주요안건에 대한 회원국의 승인

□ 2017년 의장단 승인

- 2017년 도시정책작업반 의장단(Bureau) 소개 및 회원국 승인
 - 의장: Mr. Vincent Fouchier (프랑스)
 - 부의장: Mr. Marco Magrassi (이탈리아)
 - 부의장: Mr. Akira Oshida (일본)
 - 부의장: Mr. Rick Roelofs (네덜란드)
 - 부의장: Mr. Keith Thorpe (영국)
 - 부의장: Mr. Salin Geevarghese (미국)

□ Habitat III 후속조치

- 2016년 10월 키토(Quito)에서 개최된 해비탯 III 컨퍼런스 개최의 결과로 신도시 어젠다(New Urban Agenda)가 도출된 바 있음
 - 신도시 어젠다란 도시를 보다 포용적(inclusive)이고, 안전(safe)하고, 회복력(resilient), 지속가능(sustainable)하게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구해 나갈 프레임워크를 의미함

- OECD는 UN-Habitat, 도시연합(Cities Alliance) 등과 함께 신도시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국가도시정책(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)을 시작하였으며, 이에 대한 소개와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
 - 국가도시정책(NUP)은 신도시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임을 강조하였으며, 회원국들의 국가도시정책 현황에 대해 의견청취

□ 도시화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소개

- 국가도시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서는 도시의 개념과 실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와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
- 이러한 배경하에 전세계의 도시화 현황, OECD와 유럽연합에서 기존에 제시한 바 있는 기능적 도시지역(functional urban area)등에 대하여 설명 및 소개
 -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인공위성 자료, 격자통계 자료 등에 기반하여 도출한 도시지역을 의미함

2. 국가도시정책

□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

- 해비탯 III 컨퍼런스에서 공식화된 국가도시정책프로그램(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)에 대하여 소개
- OECD, UN-Habitat, 도시연합(Cities Alliance)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, 국가도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 내용으로 구성됨
 - 국가도시정책에 대한 데이터 및 지식의 창출과 공유

- 국가도시정책에 대한 역량강화
 - 국가도시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
 - 국가도시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
 - 국가도시정책에 대한 참여촉진 및 네트워크 형성
- ※ 2017년 상반기에 제2차 국가도시정책에 관한 제2차 국제컨퍼런스를 파리에서 개최할 예정임

□ OECD의 국가도시정책

- OECD 사무국에서는 해비랫 III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바 있는 “OECD 회원국의 국가도시정책 현황”에 관해 소개하고 회원국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35개 OECD 회원국 중 구체적인 국가도시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5개 국가에 그치고 있음
 - 그러나 90%에 해당하는 국가가 국가도시정책에 해당되는 요소들은 보유하고 있어, 향후 구체적인 국가도시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음
 -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발전에 관한 부분이 가장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, 반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

□ 카자흐키스탄의 국가도시정책

- OECD는 비회원국가와의 정책교류로 수행하고 있는 바, 이 세션에서는 카자흐키스탄이 추진한 도시정책 검토보고서 (OECD Urban Policy Review of Kazakhstan)를 소개하면서 카자흐키스탄의 국가도시정책 수립방향에 대해서 소개
 - 카자흐키스탄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이후 도시인구가

- 감소하였으며, 최근들어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,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직면해 있음
- 도시권(metropolitan area)의 형성 미흡
 - 대중교통 수단의 공급과 이용 감소
 - 노후된 도시 인프라와 양질의 주택 부족 등
-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국가 도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제안되었으며, 다음과 같은 세부 개선책 등을 논의
- 지방재정의 강화
 - 토지이용계획의 개선
 - 압축도시 및 대중교통지향 개발 등의 도입
 - 공공주택의 보급과 국가내의 인구이동 촉진 등

3. 역동적 아시아의 녹색도시성장

□ 주요내용

- 역동적 아시아의 녹색성장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관하여 소개
 - 동남아시아 국가는 현재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는데, 아세안 5 국가의 도시화율은 1991년에 약 29.5%에서 2015년에는 51.4%로 증가하였으며, 2050년에는 67.7%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 - 체계적인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의 도시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교통계획과 토지이용의 통합,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, 청정 에너지원 개발 등이 중요
 -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급 정부부처간 수직적·수평적 거버넌스 체계 등 마련 필요
- 그리고 향후의 녹색도시프로그램(Green Cities Programme)의

일환으로 추진할 아프리카 도시의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으며, 사례연구를 희망하는 지역 등에 대한 의견 수렴

4. 토지이용

□ 주요내용

- 토지이용은 환경, 보건, 경제생산성, 사회적 불균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다양한 정부부처의 협력을 필요로 함
- OECD 사무국은 토지이용 거버넌스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회원국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토지이용은 환경, 사회,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
 - 전통적인 규제와 계획이회에 보다 광범한 정책이 필요
 - 인센티브 제공에 보다 집중할 필요
 -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지양
 - 점진적인 고밀화 추구 필요
 - 각종 부분정책과의 통합 필요
 - 기능적 도시지역의 개념에 기반한 토지이용정책 필요
 - 토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 필요 등
- 이후, 폴란드, 이스라엘, 프랑스 등의 토지이용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국의 토지이용 트렌드와 주요 과제 등을 소개
 - 폴란드 Lodz 지방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압축도시 개발 사례 등 소개
 - 이스라엘 Umm al Fahm, Netanay 등의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주거지 정책 등 소개

- 프랑스 Clerment-Ferrand, Nantes Saint-Nazaire 등의 도시
농촌간 협력적 계획사례 소개

1. 저밀도 경제에 대한 세미나

- 제19차 농촌정책작업반 개최에 앞서 저밀도경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
- 북부인구희박지역(핀란드, 노르웨이, 스웨덴의 지역들)과 멕시코의 모렐로주에 대한 지역정책검토보고서(Territorial Review)에서 제시된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의 네 개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
 - 혁신과 기업: 농촌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방안 등 논의
 - 인프라와 접근성: 농촌지역에 대한 효과적 인프라 투자방안과 교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 논의
 - 공공서비스 제공과 인구변화: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공경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 논의
 - 노동시장과 숙련기술: 농촌지역에 고급의 인적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등 논의

2. 오프닝 세션

□ 환영사 및 의제 승인

- 환영사 (의장)
- 제18차 농촌작업반 회의결과 요약보고 및 제19차 주요안건에 대한 회원국의 승인

□ 2017년 의장단 승인

- 2017년 농촌작업반 의장단(Bureau) 소개 및 회원국 승인
 - 의장 : Mr. Peter Wostner
 - 부의장 : Mr. Richard P. Cormier (캐나다)
 - 부의장 : Mr. Mark Cropper (유럽연합)
 - 부의장 : Ms. Sabrina Lucatelli (이탈리아)
 - 부의장 : Mr. Katsuhiko Yamauchi (일본)
 - 부의장 : Ms. Lillian Salerno (미국)
 - 부의장 : Mr. Arnaud Marty (프랑스)
 - 부의장 : Mr. Taebyung Kim (한국)
 - 부의장 : Mr. Zenap Dervis (터키)

3. 북부인구희박지역

- 핀란드, 노르웨이,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14개 인구희박 지역인 북부인구희박지역(Northern Sparsely Populated Area)에 대한 지역정책검토서 내용소개
 - 정책분야별 현황분석과 14개 각 지역별 사례연구 수행
 -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,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한 전문화가 필요
 -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

4. 멕시코 모렐로의 지역정책검토

- 멕시코 모렐로주에 대한 지역정책검토서 내용소개
 - 모렐로주는 경제 및 환경적 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더딘 생산성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
 - 교육수준이 높지 않아 비숙련 단순노동력이 주를 이루고 있

- 으며,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
- 따라서 모델주는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고 이를 지역의 노동 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을 도모하고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자 함
 - 이를 위해 도시 및 지역정책의 정비, 관광산업의 육성, 지방 재정체계 개선 등 추진

5. 스웨덴의 농촌정책 모니터링 검토

- OECD는 2010년에 스웨덴의 지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바 있으며, 6년 후인 2016년에는 당시 제안된 권고안의 실행 여부, 주요정책 이슈들에 대한 재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
- 이 세션에서는 그중 농촌개발정책(rural development policy)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
 - 스웨덴이 농촌지역의 번영과 웰빙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음
 - 그러나 농촌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있음
 - 농촌지역 발전에 대한 장기비전 부재
 - 유럽연합의 펀딩 및 정책프레임워크에 주로 의존
 - 지방정부의 역발 및 책임 불명확
 - 중앙정부의 수매정책 일관성 부족 등
 -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
 - 명확한 비전과 우선순위 등이 명시된 국가차원의 농촌개발 정책 마련
 -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강화
 - 농촌개발정책을 위한 국가차원의 자문기구 구성 등

6. OECD 국가의 농촌정책

- OECD의 농촌정책의 변화과정과 현재의 농촌정책 3.0(Rural Policy 3.0)에 대해 소개
 - 2006년 신농촌 패러다임을 도입한 이래 12개의 국가농촌정책검토를 완료하였으며, 3회의 농촌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
 - 새롭게 제시하는 농촌정책 3.0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
 - 주요목표: 농촌지역의 사회적, 경제적, 환경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
 - 주요대상 부문: 비교우위 및 절대우위에 중점을 둔 저밀도 경제
 - 정책 수단: 수요에 기반한 통합적 재정투자와 공공서비스 제공
 - 핵심 주체: 정부부처간 수직적 수평적 협력강화와 새로운 참여자 확대
 - 접근방법: 지역수준에서의 역량강화 등

7. 농촌지역의 혁신

- 농촌지역의 혁신에 있어 교역부문의 활동, 농촌의 생산성,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하여 소개
 - 저밀도 지역에도 적절한 수준의 성장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으며, 특히 도시지역에 가까운 농촌지역의 동태적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
 - 이때 교역부문의 경제활동이 이들 지역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다양한 스케일에서 집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

- 농촌지역의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
 -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면민한 이해
 - 기능적 지역의 개념에 기반한 문제 진단
 - 도시-농촌의 공동 정책 어젠다 발굴
 - 도시-농촌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
 - 파트너십의 목표 구체화 등

8. 원주민 커뮤니티

- OECD 일부 국가는 원주민을 구성된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어. 이를 지역 및 농촌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으며, 관련된 내용을 소개함
 - 스웨덴, 호주, 뉴질랜드 등의 원주민 정책 및 이슈 등 소개

9. 농촌지역의 식량안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적 접근

- OECD, FAO, UNCDF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식량안보와 식품에 대한 지역적 접근 프로젝트 추진현황 소개
 - OECD-FAO-UNCDF 프로젝트 주요 내용
 - 세가지 단계로 구성
 - 지식정보 창출
 - 정책혁신 사례발굴
 - 결과홍보 등
 - 도시와 농촌의 연계, 지속적인 정책발굴, 지역정보시스템의 필요성 등 대두

1. 오프닝 세션

□ 환영사 및 의제 승인

- 환영사 (의장)
- 제35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결과 요약보고 및 제36차 주요안건에 대한 회원국의 승인

□ 2017년 의장단 승인

- 2017년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의장단(Bureau) 소개 및 회원국 승인
 - 의장: Mr. Paul LeBlanc
 - 부의장: Mr. Georg Schadt (호주)
 - 부의장: Ms. Marie-Chantal Girard (캐나다)
 - 부의장(신임): Ms. Marikki Järvinen (핀란드)
 - 부의장(신임): Mr. Jean-Christophe Badouin (프랑스)
 - 부의장: Ms. Maria Kostopoulou (그리스)
 - 부의장: Ms. Flavia Terribile (이탈리아)
 - 부의장: Mr. Akira Oshida (일본)
 - 부의장: Mr. Jorge León Wolpert Kuri (멕시코)
 - 부의장: Mr. Peter Wostner (슬로베니아)

2. 해비탯III 이후의 정책방향과 신도시의제

□ 국가도시정책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

- 20년마다 개최되는 해비탯 컨퍼런스에서는 인간 정주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
- 2016년 10월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개최된 해비탯 III 컨퍼런스의 결과로 신도시의제를 도출한 바 있으며,
- OECD는 UN-Habitat 등과 함께 신도시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착수한 바 있음을 설명하고, 신도시의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
 - 제3차 해비탯 컨퍼런스의 최종 산출물은 신도시의제라고 할 수 있음
 - 신도시의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여, 기존 도시계획 및 개발방식을 보완하여, 포용적 성장 등을 추구하고 있음
 - 이를 위해 다부문의 통합적 정책, 다계층 거버넌스, 기능적 도시지역 등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하고자 하고 있음
 - 그리고 신도시주의의 실천을 위한 핵심요소로 국가도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추구하고 있음

□ 모두를 위한 도시 만들기

- OECD 회원국 전체인구의 50%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, 지난 15년간 GDP 성장의 60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가구소득도 비도시징겨보다 평균 18%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그러나 한편 도시내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, 소득격차, 주거분리 현상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
- 이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,

- 도시내에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석가지 핵심요소를 제시
 - 도시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직업 창출
 - 형평성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
 - 포용적 주택시장 조성
 - 적절한 가격의 대중교통 제공
 - 건전한 커뮤니티 조성 및 신뢰성 있는 공공 서비스 제공 등

3. 다계층 거버넌스 개혁과 지역발전 : 실천을 위한 원칙들

□ 주요내용

- OECD는 효과적 공공투자를 위한 다계층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여 왔으며, 두가지 축에서 작업을 진행
 - 내용 구체화 및 방법론 개발: 개념적 프레임워크 마련, 지표 개발, 데이터 수집 등
 - 국가별 사례연구 수행: 칠레, 슬로바키아, 스웨덴, 콜롬비아
- 이 세션에서는 스웨덴과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회원국의 승인을 요청
 - 스웨덴의 다계층 거버넌스를 통해 경우 포용적 성장과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재정이 집행되고는 있으나, 중간단계의 정부조직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비대칭적 지방분권을 보다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음
 - 콜롬비아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 및 지역불균형도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,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아직 거리가 있음.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절된 재정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평적 수직적 거버넌스를 증

대시킬 것을 권고함

□ 국가 차원의 데이터: 다계층 거버넌스 지표와 지방 재정

- 지방 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지표개발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구조와 재정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 소개
 - 101개 대상 국가별로 프로파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종합적 비교분석한 내용으로 구성
 - 지방정부 부문은 전체 공공지출중 약24%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, 공공투자의 약 40% 정도가 지방정부의 투자임
 -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과 교부금이 약 53%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주요한 수입원이며, 그 다음으로는 32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 수입으로 나타남
 - 국가별로 소득이 높을수록 분권화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님
- 향후에도 툴킷 및 지표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,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수행 예정임

5. 후발(Catching-up) 지역 생산성 동향

□ 주요내용

- 2016년 지역전망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간의 격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내 지역간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음
 - “선두(frontier)” 지역의 생산성은 다른 모든 지역의 생산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
 -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“후발(catching-up)” 지역

- 의 중요성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
- OECD는 후발 지역의 성장에 있어 교역부문(tradable sector)의 존재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하에, 교역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정책연구를 착수하였으며, 이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소개하였음
 - 교역부문에 대한 개념적 정의, 생산성 향상의 측정 지표, 국가간 지역간 비교분석 등 수행
 - 2017년에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 예정이며, 유럽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후, 2017년 하반기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 최종연구결과 발표 예정

6. 국제관계

□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국제관계활동 소개

- OECD는 비회원국과의 정책교류를 위하여 모로코를 초청하여 모로코의 지역개발정책을 리뷰하였으며, 이 세션에서는 모로코의 지역개발 정책을 간략히 소개
 - 모로코는 2011년 지역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으며,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지역개발기구 및 지방정부 조직을 정비
 - OECD와의 정책교류를 통해 모로코의 지역개발정책 수립과 정책에 시사점을 얻기를 희망하며, 이를 통해서 모로코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를 희망하고 있음
 - 지역정책 교류협력의 네가지 축은 다음과 같음 대도시권화, 도시와 농촌의 연계, 지역 지표, 공공투자 거버넌스 등
 - 향후 교류협력 활동일정 등 소개

□ 국제관계활동(비공개 세션)

- OECD의 국제관계활동 전략 및 방식에 대해 설명
 - 비회원국의 참여 레벨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으로 구성됨
 - 초청국(invitees): 공개 세션에 참여, 의장의 재량에 따라 발언 가능. 현재 17개국
 - 참여국(participants): 공개 세션에 참여 및 발언 가능. 현재 모로코, 남아공, 페루
 - 준회원국(associates): 비회원국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모든 세션에 참석 및 발언 가능. 현재 없음
- 국제관계활동에 대한 향후의 일부 변경사항 설명
 - 신도시 어젠다, 파리 협약 등 새로운 국제선언들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반영
 - 준회원국의 조건 단순명료화
 - 초청국의 일부 추가: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녹색도시 성장 프로젝트에 참여, 캄보디아는 농촌정책의 식량안보 프로젝트에 참여 등